

후계자 교육으로 우리 낙농업의 미래를 열자!



류재현
농협중앙회 축산건설팀부 차장

1. 낙농업을 둘러싼 환경

어떤 산업이든 그 산업의 미래는 그 산업을 이어갈 젊은 후계세대들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꿈과 비전은 그 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유지 발전가능 하느냐 못하느냐의 중요한 척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낙농업 또한 이와 같은 법칙에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한때 돈을 벌려면 낙농업을 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호황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낙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보면 이상기후와 구제역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유생산량의 급감, 우유소비 감소,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가 증가되고 있으며, 한미 FTA 타결에 이어 한EU FTA가 내년 7월1일 잠정 발효하기로 정식 서명을 완료함에 따라 늦어도 내년 6월까지의 국회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한EU FTA 비준은 아마도 낙농업과 양돈업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후계자교육 실시 배경 및 성과

이러한 낙농업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축산관련 단체, 학계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혜를 모아 어려운 난제들을 하나, 둘씩 해결에나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본회차원에서도 이러한 낙농업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낙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세대들에게 낙농현장에서 의욕을 갖고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2008년도부터 낙농자조금의 후원을 받아 경쟁력 있는 명품목장의 육성과 핵심낙농엘리트 육성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낙농에 관심있는 후계자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낙농후계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2010년 10월 현재 5기에 걸쳐 3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그동안 낙농후계자 교육의 성과를 말하자면 아무래도 교육기간 동안 맺은 친분을 바탕으로 교육생 상호 간에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공유와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2010 제5기 후계자 교육

금년에 실시한 제5기 교육은 구제역 상황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교육 일정이 예년에 비해 한 달 정도 늦은 10월20일부터 10월22일까지 2박3일 과정으로 농협수안보보험수련원에서 실시되었으며, 영농기 조사료 생산시기와 맞물려 당초 교육신청인원과 달리 40여 명밖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배우겠다는 열정만큼은 어느 기수보다도 뜨거웠던 것 같다.

이 기간 농림수산물부 이성주사무관은 낙농산업 현황과 문제점, 그

리고 비전과 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낙농산업종합대책추진방향에 대하여, 김현진박사는 젖소영양대사판정 이라는 과목으로 우리나라 젖소 사양관리상의 문제점 및 산유량, 번식·산차에 따른 생산성 비교평가에 대하여 강의 하였으며, 경북대구낙협 김진목과장은 진공압, 진공게이지를 포함한 착유시설 주요점검항목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고, 전남대학교 서국현 교수는 젖소질병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구제역을 포함한 주요 전염성질병과 영양대사성질병, 소화기질병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낙농HACCP과 젖소 개량을 위한 수정란이식에 대한 강좌를 포함한 모두 7강좌의 교육이 실시되어 교육생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매 교육시간마다 낙농현장에서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열띤 질문과 토의로 정해진 교육시간을 초과하여 교육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교육이외에 교육생 상호간의 낙농업발전을 위한 상호토의와 향후 5기 교육생 간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위한 임원선출, 교육소감 및 수료 순으로 2박3일 과정을 소화해 냈다.

4. 아쉬운 점 및 향후방향

금번 교육과정이 이론 위주로 편성 되어 현장의 생동감 있는 실습을 하지 못하였으며, 낙농업의 중요한 당면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분뇨처리문제, 후계축산인의 지적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깨끗한 목장과 연계한 체험학습장 운영 성공사례 등을 교육과정에 담아내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1년도 실시되는 향후 6기 교육부터는 지금까지 실시 해 왔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점은 더

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부족한

점은 철저히 보완하여 낙농후계

자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있

는 수준별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여 우리낙농업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본

회의 낙농후계자교육을

통하여 미력하나마 기여하

고자 한다. ☺

